

## 남북의 말과 글

최 용 기\*

### 차 례

1. 머리말
2. 지역 방언(지역어)과 남한의 표준어, 북한의 문화어
3. 남북의 어휘
  - 가.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 나.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 다. 남북한, 중국에서 새로 생겨난 어휘
4. 맺음말

### 1. 머리말

남북이 분단된 지 50여 년이 지났다. 남북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같은 정책을 펴게 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한민족은 우리의 말과 글이 이질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남북 분단 50여 년의 세월은 유감스럽게도 남북의 언어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북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눈 대화 중에 나오는 “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라는 표현이나 “너무나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와 ‘너무나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라면 남북의 언어 차이를 느낄 것이다.

우리말의 언어 차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이 헤어져 살아온 50여 년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이념에 따른 언어 정책의 차이로 오늘날 매우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차이는 음운, 문법, 어휘 등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어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즉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어휘이기 때문이다.

## 2. 지역 방언(지역어)과 남한의 표준어, 북한의 문화어

우리말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말(한국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지역 방언(혹은 지역어)과 사회 체제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지역 방언은 동북(함경도, 양강도) 방언, 서북(평안도, 자강도) 방언, 중부(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방언, 호남(전라도) 방언, 영남(경상도) 방언, 그리고 제주 방언으로 나누고, 사회 체제 방언은 남한의 표준어, 북한의 문화어, 기타 국외 동포의 조선말(또는 고려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방언이나 사회 체제 방언의 형성은 대체로 지역이나 사회 체제 사이의 언어 접촉이 잦지 못함으로써 각기 다른 발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러한 방언을 우리말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방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언 안에서는 서로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방언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인위적으로 정한 말이 소위 규범어이다. 이 규범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사용

되는 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어를 '표준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어를 '문화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말의 또 다른 사회 체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표준어'는 우리나라의 남부 방언이 되고,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나라의 북부 방언이 될 뿐이다. 이 두 체제 방언도 실은 지역 방언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서로간의 언어 접촉이 갖지 못함으로써 각기 다른 발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 체제 방언인 '표준어'와 '문화어'의 형성 과정과 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한의 '표준어'는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이라 한 이래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한다. 그 이후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표준어 모음집인데, 이 모음집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이 나올 때까지 50여 년 동안 표준어의 기준이 되었다.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 뒤에 1990년 9월에는 국어연구소가 조사하여 사정한 '표준어 모음'을 다시 발표하였다.

북한의 문화어는 정치 사회적인 이념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운동의 출발은 김일성의 1964년 1월 3일과 1966년 5월 14일에 발표된 교시에서 비롯된다. 특히 1966년 교시에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고, "표준어는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고쳐 쓰는 것이 낫다."라고 지시하였다.

문화어에 대하여 '조선말대사전'(1992)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 민족어의 본보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준어’와 ‘문화어’는 기준으로 삼은 지역과 사회적 체제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표준어는 지역적으로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 체계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어는 지역적으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체계에서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가꾸어진 언어’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남한의 표준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언어인데 북한의 문화어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3. 남북의 어휘

남북의 어휘가 서로 다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지역과 사회 체제를 중심으로 표준말을 정하였다. 즉,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에서는 서북 방언에 불과하던 많은 어휘들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에서는 규범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남한에서는 일본어투나 서구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를 하였고, 북한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되도록 쓰지 않기 위해 말다듬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셋째,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이 다르다 보니 달라진 어휘가 생겨났다. 넷째, 다

른 사회 체제 때문에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 가.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 말

남북의 어휘 간에 뜻은 같거나 비슷하지만, 형태가 다른 낱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북한의 문화어가 된 지역 방언 어휘

북한의 문화어 가운데에는 남한의 표준어 이전에 북한 지역의 방언에 해당되던 어휘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현재의 문화어에 포함됨으로써 남한의 표준어와 다른 어휘 부류를 형성했다. 이것은 북한이 고유어를 살려 쓰기 위해 일부러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동북 방언, 서북 방언)에서 쓰이던 방언들 중에서 많은 어휘를 문화어로 올렸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에 따르면 약 4,000여 개의 어휘들이 북부 방언에서 문화어가 되었다고 한다>(\*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한의 표준어임.)

가시아버지(장인), 가잡다(가깝다), 강구다(기울이다), 강보리밥(콩보리밥), 기사니(거위), 그즌하다(잘 갖추어져 있다), 남새(채소), 내굴(연기), 늑다(값이 싸다), 닭알(달걀), 되우(몹시), 똑쟁이(무뚝뚝한 사람), 마사지다(부서지다), 망돌(멧돌), 망탕(마구), 무리(우박), 바라다니다(마구 돌아다니다), 바재이다(마음 졸이다), 방치들(다듬잇돌), 번지다(거르다), 부루(상추), 상기(아직), 소래(대야), 숙보다(깎보다), 아츠럽다(거북하다), 여가리(가장자리), 여직(여태), 인차(곧), 자래우다(기르다), 정지(부엌), 터지다(대단히 많다), 하냥(줄곧)

#### (2) 남북한 한자어의 독음법 차이

남북한 맞춤법의 차이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한자어는 같고 단순히 한자어의 독음법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였다. 심지어 남한의 국어 사전에서도 북한식 독음법을 그대로 표제어(올림말)로 올린 것이 있다. (\*

### 남한의 표준어-북한의 문화어)

개전-개준(改悛), 객담-각담(喀痰), 각출-거출(釀出), 발취-발취(拔萃), 사주-사촉(使嫉), 오류-오유(誤謬), 왜곡-외곡(歪曲), 준설-준침(浚渫), 표지-표식(標識), 항문-홍문(肛門)

### (3) 남북한의 음운적 차이로 달라진 어휘

남북한의 음운적 차이로 달라진 어휘도 있다. 여기에는 'l' 모음 역행과 순행 동화로 변음된 것, 모음이 교체된 것, 된소리와 예사소리로 변한 것, 음절이 축약된 것, 전설 모음화가 일어난 것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한의 표준어임.)

거마리(거머리), 도드라기(두드러기), 무데기(무더기), 웅덩이(웅덩이), 지푸래기(지푸라기), 헤엄(헤엄), 논둑(논덕), 원쑤(원수), 색깔(색갈), 손벽(손뽕), 잠깐(잠간), 드디어(드디어), 수줍다(수줍다)

### (4) 국어 순화와 말다듬기에 따른 차이

국어 순화는 남한에서 광복 이후 추진한 국어 정화 운동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자는 것이며, 국어 순화의 대상은 주로 일본어투, 서구의 외국어나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다. 말다듬기는 북한에서 문화어 운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과거에 한자어로 된 공통 어휘였던 것이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대단히 많다. (\*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순화 대상 용어임.)

<국어 순화에 의한 차이>

개최지 이점(홈 어드밴티지, home advantage), 거리팔기(가두판매, 街頭販賣), 길잡이(가이드, guide), 고치다(개조하다), 깔개(매트, mat), 다시맵시(각선미, 腳線美), 단체(그룹, group), 득점 뒤풀이(골 세리머니, goal ceremony), 막팔기(덤핑, dumping), 비탈(구배), 상여금(보너스, bonus), 싨다(계재하다),

실수(에러, error), 안내서(가이드북, guidebook), 안전요원(라이프 가드, life guard), 에누리(디스카운트, discount), 옷돈(가전, 價錢), 잣다(빈번하다), 일정표(스케줄, schedule), 지도력(리더십, leadership), 탈놀이(가면무도회, 假面舞踏會), 테두리(아우트라인, outline), 잣길(노견, 路肩)

<말다듬기에 의한 차이>

가까운바다(근해), 가락지빵(도넛), 가루소젓(분유), 가슴띠(브래지어), 가짜 죽음(가사), 고루깍기(평삭), 교예(서커스), 기다림칸(대합실), 기름과자(캐러멜), 겨울림(공명), 꽃댕기(리본), 꽃 피는 때(개화기), 끝신(슬리퍼), 나넌웃(투피스), 나리웃(드레스), 남작못(압정), 넓은앞나무(활엽수), 단알약(당의정), 단얼음(빙수), 단졸임(잼), 달린웃(원피스), 동강치마(미니스커트), 마른물고기(건어), 무리등(상들리에), 바깥힘(외력), 불견덜성(내화성), 설기과자(카스테라), 손기척(노크), 씩음막이약(방부제), 양복치마(스커트), 옷 벗는 칸(탈의실), 원주필(볼펜), 잔짐(소화물), 향참외(멜론)

그런데 위와 같이 남한에서 순화한 말과 북한에서 다듬은 말 중에는 서로 다른 것도 많지만 같은 말도 상당히 많다. 지난 2002년에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발간한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에 따르면 남한 순화 용어 22,655 항목과 북한 다듬은 말 자료 38,307 항목을 비교한 결과 705 항목이 서로 같다고 하였다.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말로 고친 것은 다음과 같다. (\*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순화 대상 용어임.)

가는붓(세필), 갈아타기(승환), 감추다(은닉하다), 갸다(상환하다), 검은숲(흑탄), 겹모양(외양), 겨를(여가), 겨울잠(동면), 구름무늬(피운문), 그림자(음영), 기름(유지), 꼬리등(미등), 끝다(견인하다), 나무베기(벌목), 등면(배면), 물박이벽(지수벽), 바탕흙(태토), 부엌(주방), 부풀기(팽화), 비탈면(사면), 살다(서식하다), 살찌우기(비육), 소가죽(우피), 신다(적재하다), 씨앗(종자), 알뿌리(구근), 어린모(유묘), 어미돼지(모돈), 여러해살이(다년생), 옮겨 심다(이식하다), 잔모래(세사), 잘못 적다(오기하다), 쥐약(살서제), 찾아보기(색인), 첫서리(초상), 칩뿌리(갈근), 팔다(판매하다), 혼잣말(독백), 흘눈(단안), 막팔기(덤핑), 사진첩(앨범), 속임동작(페인트모션),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차림표(메뉴)

### (5) 남북한 어문 규정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 어휘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남북한의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라진 말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음 법칙에 의한 차이이다.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다. 두음 법칙(머리소리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일부 소리가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말하는데, ‘ㄹ’이 첫머리에 오지 못하고 ‘ㄴ’으로 바뀌거나 소리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령 ‘ㄴ’으로 바뀌는 경우는 ‘락원(樂園)이 ‘낙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라, 로, 루, 르, 래, 뢰’ 등이 ‘나, 노, 누, 느, 내, 뇌’로 바뀐다. 또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량심(良心)이 ‘양심’으로 바뀌는 것처럼 ‘랴, 려, 례, 료, 류, 리’가 ‘야, 여, 예, 요, 유, 이’로 바뀐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위와 같이 두음 법칙에 따라 적도록 한 반면에, 북한의 ‘조선말 규정집’은 한자말은 소리마디(음절)마다 해당 한자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낙원, 노동, 내일, 양심, 요소, 여성’으로 쓰고 발음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락원, 로동, 래일, 량심, 뇨소, 녀성’으로 적고 발음한다.

그 다음은 사이시옷에 의한 차이도 심각하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고유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타나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에서 ‘나뭇가지, 바닷가, 아랫방, 전셋집, 아랫니, 냇물, 제삿날, 예삿일’로 적는 어휘들을 북한에서는 ‘나무가지, 바다가, 아래방, 전세집, 아래니, 내물, 제사날, 예사일’로 적는다. 그러나 이들은 적는 법만 다를 뿐 발음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어미를 ‘여, 였’으로 적도록 하여 남한의 한글 맞춤법



과 다르다. 그래서 기본형이 ‘기다, 개다, 베다, 되다, 회다, 하다’인 경우는 북한어에서 ‘기여, 기였다’, ‘개여, 개였다’, ‘베여, 베였다’, ‘되여, 되였다’, ‘회여, 회였다’, ‘하여, 하였다’가 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하다’만을 불규칙 용언으로 보아 ‘하여, 하였다’와 같이 적고 나머지는 ‘기여, 기였다’, ‘개여, 개였다’처럼 적는다.

외래어를 적는 방법도 남북한이 서로 달라 표기와 발음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에는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모두 따라 썼다. 그러나 남북한이 각각 다른 정부를 세운 뒤에는 언어 정책이 달라지고 주로 접하는 외국어도 달라져 외래어 표기법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되도록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고유 명사를 포함하여 일부 외래어는 쓰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조사해 볼 결과 북한에서도 상당히 많은 외래어를 쓰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외래어는 다음과 같다. (\*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한의 외래어임.)

그루빠(그릅), 까히라(카이로), 캄빠니아(캠페인), 네델란드(네덜란드), 도마도(토마토), 두나이강(다뉴브강), 딸라(달리), 탕크(탱크), 트랙또르(트랙터), 라디오(라디오), 로씨야(러시아), 마자르(헝가리), 메히꼬(멕시코), 미누스(마이너스), 벨지꼬(벨기에), 뿔스까(폴란드), 스케트(스케이트), 슬로벤스꼬(슬로바키아), 썬빠올로(상파울루), 아파트(아파트), 에네르기(에너지), 와르샤와(바르샤바), 우라니움(우라늄), 예집트(이집트), 월남(베트남), 텔레비존(텔레비전), 테로(테러), 팔프(펠프), 핀세트(핀셋), 흐르바쯔까(크로아티아)

외래어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ㄱ, ㄷ, ㅂ, ㅅ, ㅈ’ 등 된소리를 과열음 표기에 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된소리를 쓴다는 것이다. 그 밖에 남한에서는 주로 접촉하는 외국어가 영어이므로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에서는 러시아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서로 다른 외래어가 생겨났다. 또 지명과 인명을 비롯한 고유 명사를 적을 때도 남한은 ‘이집트, 베트남’처럼 원음보다는 그 말을 전해준 언어의 소리나 관용을 중시하는데, 북한은 ‘에집트, 월남’처럼 원음에 가깝게

적도록 하거나 받침에 ‘ㅍ, ㅌ’ 등을 표기하는 것도 남한의 외래어 표기와 다른 점이다.

### (6) 기타 북한어의 관용 표현

남한에서 쓰지 않는 관용 표현들이 북한어에는 매우 많이 있다. 아래 내용은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들이다. (\*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이 남한의 관용 표현임.)

가리산을 못하다(갈팡질팡하다): 어떻게 된 셈인지 가리산을 못하다가….  
까박을 붙이다(트집을 잡다): 쓸데없이 까박을 붙이다.  
돈키가 높다(값이 비싸다, 빛이 많다): 돈키가 높아서 우리 손에 넣기는 힘들다.  
마련을 보다(끝장을 보다): 무슨 마련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면목이 서다(체면이 이루어지다): 그것을 5·1절까지 만들어 놓아야 면목이 선다.  
면목이 있다(낯이 있다): 다소 면목이 있는 사람이다.  
바람을 쬐다(배를 차게 하여 배를 앓다): 바람을 쬐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은을 내다(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 오다): 석탄 생산에서 은을 내는 새로운 발파법.  
잔밥에 빠지다(어린이 잔시중을 듣다): 잔밥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다.  
케가 그르다(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 그르다): 케가 글러서 일이 재미없다.

새 말을 만들어 내는 방법(‘조어법’이라고 함)의 차이 때문에 낯설게 보이는 말들도 있다. 조어법의 경우 북한에서는 이미 있던 접사들의 기능이 확대되어 사용되거나 특히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던 것들이 용언 파생의 새로운 어미처럼 사용되어 새로운 낱말을 많이 생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지다, -차다, -싸다’라는 접미사들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차레지다, 주렁지다, 영광차다, 자랑차다, 사내싸다, 어른싸다’와 같은 말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동사의 사역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도 달라서 남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우-가 북한에서는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바래다주다’의 뜻으로 ‘바래우다’, ‘놀라게 하다’의 뜻으로 ‘놀래우다’, ‘자라게 하다’의 뜻으로 ‘자래우다’, ‘빛

내다'의 뜻으로 '빛내우다', '떨리다'의 뜻으로 '떨리우다', '가려지다'의 뜻으로 '가리우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남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 '저주롭다, 고르롭다, 명랑스럽다, 우연스럽다, 자랑겹다'처럼 '-스롭, -롭-, -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도 있다.

아예 용어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남한에서는 '양로원,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양생원, 위생실'이라고 부르고, 또한 '서로'라는 뜻의 한자어를 남한에서는 '상호(相互)', 북한에서는 '호상'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 나.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남북한 사람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말이다. 형태가 다르거나 서로가 모르는 어휘일 경우에는 주의하여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 (1) 남북한에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어휘

같은 단어인데도 남북한에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치담배'라는 말의 뜻은 남한에서는 '날담배'와 같은 말로 담뱃갑을 뜯어 날개로 피는 담배를 가리키는데, 북한에서는 종이로 만 담배(궐련)를 가리킨다. '빨치산'도 남한에서는 '게릴라'를 의미하나, 북한에서는 '혁명적 영웅'을 뜻한다. 또 '노작'(북한에서는 '로작'으로 표기)이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힘들여 만든 작품을 뜻하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저작을 이를 때에 쓰는 말이 되었다. 그 밖에 '담보'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돈을 빌릴 때 맡기는 물건'인데, 북한에서는 '어떤 목적의 실현을 어김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감투'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벼슬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북한에서는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책임이나 누명을 비껴 이르는 말'이 되었다.

## (2) 남북한에서 어감이 다른 어휘

기본적인 뜻은 같으나 남북한에서 어감(말의 느낌)이 다른 말들도 있다. 이런 말들은 남북한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한에서 좋은 뜻이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남한에서 좋지 않은 뜻이 북한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가령 남한에서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나, 북한에서는 ‘착취와 협잡으로 굶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 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여 매우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신사’도 남한에서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 있으며 예의바른 남자’를 가리키나, 북한에서는 ‘말썽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라고 하여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다. ‘귀부인’도 남한에서는 ‘신분이 높은 여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특권층에 속하여 놀고먹는 여자’라고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 반면에 ‘소행’이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좋지 않은 행위에 쓰이나(소행이 껄뻘하다), 북한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다). 또 ‘보채다’는 남한에서는 ‘성가시게 조른다’는 뜻인데,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한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 (3) 남북한에서 새로운 뜻이 더해진 어휘

남북한 모두 기본적인 뜻은 같으나 특히 북한에서 새로운 뜻이 더해져서 차이가 나는 말들이 있다. ‘바쁘다’라는 말은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가리키는 데,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기 매우 어렵거나 딱하다는 뜻’이 더 있다. ‘번거롭다’라는 말도 남한에서는 ‘일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는 뜻만 있지만, 북한에서는 ‘생각이 어수선하다’는 뜻이 더 있다(차츰 머리가 번거로워지는 …). 또한 북한에서는 ‘총질’은 ‘눈총을 쏘는 것’, ‘종자’(種子)는 ‘문예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 ‘해살’(남한의 표기는 ‘햇살임’)은 ‘인민에게 비추어 주는 희망과 행복의 빛살’, ‘세포’는 ‘당원을 교양하고 단련하여 지도하는 기본 조직’, ‘아저씨’는 ‘언니의 남편

을 부르는 말(형부)이라는 뜻이 덧붙여졌다.

#### 다. 남북한, 중국에서 새로 생겨난 어휘

남북한은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사회 체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념(이데올로기)에 관계되는 말들은 당연히 서로 다르거나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남한의 표준어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가령 '부동산 중개인, 주말 농장, 재테크, 맛벌이'와 같은 말은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 남북 분단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말이 엉뚱하게 변질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친한 벗을 가리키는 말인 '동무'나 뜻이 서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동지'는 이전에는 널리 쓰던 말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말로 널리 쓰이자 남한에서는 이를 사회주의 언어라고 하여 이를 회피하고 그 대신 한자어인 '친구'를 널리 쓰게 되었다. 남한에서 광복 이후 생겨난 신어와 외래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제한하는 일.

데이트: 이성 간에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 약속.

러시아워: 통근, 통학 등으로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

레크리에이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북돋우기 위하여 오락이나 여가를 즐기는 일.

바코드: 제조업자, 상품명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상품에 표시된 흑백의 줄무늬 기호

베스트셀러: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

재수생: 입학시험에 실패한 뒤 다음해를 대비하여 다시 공부하는 학생.

파출부: 보수를 받고 출퇴근을 하며 가사를 돌보아주는 여자.

카풀: 방향이 같은 이웃끼리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일.

효도 관광: 자녀들이 비용을 대어 부모님께 여행을 시켜 드리는 것.

반면에 북한의 문화어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말들이 많

이 생겨났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생활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

가두녀성: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

가을빼꾸기소리: 믿을 수 없는 헛소문.

금별메달: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나 대상에게 수여하는 오각별을 새겨 넣은 금메달.

팡포쟁이: 허풍이 많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닭공장: 닭을 공업적 방법으로 많이 키우는 기업소, 또는 그 건물.

뜨게부부: 사실혼 부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남녀.

만가동: 계획이나 규정대로 완전히 다 가동하는 것.

밥공장: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물들을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선진분자: 사업과 생활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

평양속도: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건설하는 데서 창조된 사회주의 건설의 매우 빠른 속도.

한편, 중국의 조선말 어휘도 형태가 같고 뜻이 다른 생소한 말이 많이 생겨났다. 여기서는 주로 남한과 비교하여 현지에서 조사된 몇 개의 어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하(大廈): 높은 건물, 빌딩을 이르는 말.

복무원(服務員):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소저(小姐): 여자 종업원.

술술하다: 보통이다.

쉬다: 주무시다.

안배(按配):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줌.

애인(愛人): 부부를 서로 지칭할 때 쓰는 말.

양백 원: 이백 원.

일없다: 썩찮다.

중심(中心): 가운데. 센터.

채소(菜蔬): 요리를 지칭할 때 쓰는 말.

이 가운데 ‘안배’와 ‘일없다’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었

다. 또 외래어인 ‘코카콜라, 펌시콜라’를 ‘가구가락(可口可樂), 백사가락(百事可樂)’처럼 고쳐 부르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남북의 어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로 어휘에 한정된 것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휘 차이 중 일부는 남북 분단 전부터 있던 방언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휘들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현재 이 말들이 단순히 한 지역의 방언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 언론, 출판물 등에 공식적으로 두루 쓰이는 규범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의 어휘가 따로 생겨나 우리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남북의 어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언어가 문장이나 소리의 체계에서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어휘만 일부 변화했다면 그 언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휘 면에서는 이미 남북의 동포들이 서로의 말을 다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이 된 후에, 이미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할 일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4).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도서출판 길벗.  
 \_\_\_\_\_(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주)정문사문화.  
 \_\_\_\_\_(1998). 외래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 \_\_\_\_\_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_\_\_\_\_ (2001).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새국어생활』 제11권 제1호
- 김민수(1989).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 \_\_\_\_\_ (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도서출판 녹진.
- \_\_\_\_\_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태학사.
- 남성우(1990). 『북한의 언어 생활』. 고려원.
- 문화관광부(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 이승재(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 이옥련(1997). 『남북한 언어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도서출판 녹진.
- 정희원(1999). 남북한의 언어 차이. 『한국어 연수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학회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_\_\_\_\_ (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3). 국어 순화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4). 한국-북한-중국의 우리말 어휘 차이. 『국의 한국어 교사 초청 교육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4). 남북의 말과 글. 『말과 글』 제100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 한글문화연대(2003). 『남북한의 외래어 수용 태도와 통일 방안』. 한글 문화토론회 자료집.
- 허철구(1993). 남북한 국어 순화의 비교. 『말과 글』 제54호. 한국어문 교열기자협회.
- 북한 국어사정위원회(1986). 『다듬은 말』.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북한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사회과학원출판사.
- \_\_\_\_\_ (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중국 조선어사정위원회(1996).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